

筆巖書院 山仰會報



life's ingredients samyang

고객의 생활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행복을 키우기 위해
 삼양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90년만큼
 앞으로의 90년도
 천천히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90년
 자랐을 뿐입니다

90th

삼양사 화학연구소 윤광중 님 자녀 윤수영 양

하서 시(河西 詩) 감상

무제(無題)

河西 김인후

좋은 나무 元氣에 함초롬 젖어
우뚝 솟아 가지 멀리 들치었구려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떠받고
비 이슬은 자양이 풍족하여라
어진 바람 온 누리를 불어 떨치자
만물이 우줄우줄 춤을 추더니
눈과 서리 갑자기 휘몰아치니
곧은 등걸 시들어 꺾어지누나
구슬피 울어대는 뭇 새들 소리
날고난들 어디에 의지할건고
어둠녘에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
부슬부슬 장마비 흘날리더라

佳木涵元氣
亭亭揚遠枝
上承日月光
雨露繁華滋
仁風振海宇
萬類方怡怡
風霜忽飄薄
直幹還摧萎
眾鳥聲啾啾
飛飛何所依
黃昏暮雲起
霖雨來霏霏

※백승종교수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정치적 회오리바람이 금호 임형수를 비롯한 동지들을 모조리 삼키고야마는 것을 목격하면서, 김인후는 크게 낙심하였다. 짧지만 희망에 찼던 인종의 재위 기간과 비교하면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김인후는 구슬피 노래한다. “어진 바람 온 누리를 불어 떨치자, 만물이 우줄우줄 춤을 추더니/ 눈과 서리 갑자기 휘몰아치니, 곧은 등걸 시들어 꺾어지누나/ 구슬피 울어대는 뭇새들 소리, 날고 또 난들 어디에 의지할건고.” 인종과 함께 나는 유교적 이상정치의 꿈이 무참히도 짓밟혔다는 회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다.

우연히 뒷산 정자에 나가다(偶出後亭)

빠른 바람 숲을 불어 풀은 죄다 쓰러지고
떨어진 잎 다시 날아 공중에 번득이네
해는 밝다 흐렸다 날씨가 일정찮고
천둥은 일다말다 스스로 기약 없어
성긴 밭에 비가 개어 은실이 걸려지고
높은 나무 꿩꼬리는 옥피리를 들려주네
알쾌라 서늘 기운 더웠병을 씻어가니
쇠한 몸이 도리어 시 읊기나 일삼고자

快風吹木草離披
落葉翻空雲疾馳
日彩昏明猶不定
雷聲喧寂自無期
踈簾雨捲銀絲亂
高樹鶯傳玉管吹
頓覺微涼蘇暑暍
病身還欲事吟詩

노중에 천둥을 만나 늦게 달을 띠고 집에 당도하다(路中逢雷雨帶月至家)

높고 낮은 산길을 종일토록 걷다보니
서리 지난 산골에 단청이 찬란하다
푸른 물결 돌 달리어 물결이 성을 내고
찬비는 바람 쫓아 기상이 사나워라
산협 밖의 한길에는 옷이 해를 쫓이는데
역 서쪽 들판에는 별이 물에 잠겼구나
구름 하늘 조각달이 어둠 속에 비쳐주니
말머리 문에 닿자 밤은 별서 이경인걸

山路崎嶇盡日行
經霜巖壑煥丹青
碧流走石波濤怒
冷雨奔風氣象獍
峽外長程衣曝日
郵西大野水沈星
雲天缺月昏猶照
馬首當門夜二更

늘 하서공의 칠석부를 외우더니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

늘 하서공의 칠석부를 외우더니
칠월 칠석 날에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구나.
맑은 마음에 재주 있는 너를
어디 간들 다시 생각나지 않으랴

悼婢蘇合

每誦河西賦	매송하서부
還從七夕歸	환종칠석귀
明心將素質	명심장소질
何處更依依	하처경의의

이 시는 기묘명현 학포 양평손(1488-1545)의 셋째 아들이요 선조 임금 때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송천 양응정(1519-1581)이 여종 소합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시입니다.

소합이 어떤 여종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응정은 이 시에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아 놓아 그나마 그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사로 서울에서도 이름났으며, 칠석부 七夕賦를 잘 외웠다. 고죽 최경창이 그

녀를 극진히 아껴주었는데 나이 열일곱에 칠월칠석날 죽었다.

칠석부 七夕賦는 하서 김인후(1510-1560)가 1528년 그의 나이 19세 때 칠석날 열린 성균관 백일장에 참가하여 장원한 노래로서, 견우와 직녀의 만남과 이별을 소재로 한 55구에 이르는 장편 노래입니다. 하서의 백일장 장원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은 너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시골의 유생이 지었다고 보기가 힘들고 남의 글을 베낀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출제위원인 대제학 이행(李荇)이 하서를 불러 일곱 가지 과제를 다시 내어 시험을 보였다 합니다. 이때 하서는 그 자리에서 막힘없이 뛰어난 글을 지어 대제학 이행이 다시 한 번 경탄하였다 합니다.

그 후 이 노래는 너무 인기가 많아 장안의 기생들이 앞 다투어 읊었다고 하며, 소설 <김하서전>에도 칠석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애 여종 소합을 아껴준 고죽 최경창(1539-1581)은 양응정의 문인으로서 손곡 이달, 옥봉 백광훈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생 홍랑과의 애절한 사랑

을 한 풍류객입니다. 기생 홍랑이 지은 시조, '뿔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거든 나인가도 녀기쇼셔.'의 주인공이며, 요즘말로 훈남이었습니다.

이 만시를 읽어 보면 여중 소합은 양응정과 최경창이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자주 칠석부를 읊었다 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녀가 열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칠월칠석날 죽은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애절한 노래 칠석부를 너무나 애창하다 보니 운명이 그녀를 칠석날 죽게 한 것일까요.

아무튼 이 시는 1, 2구에서는 여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3, 4구에서는 여중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도 화순 출신 양응정은 그보다 나이가 9살 위인 장성출신 고향 선배 하서 김인후를 매우 존경하였나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1569-1618)의 <성웅지소록>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서 김인후는 인품이 매우 높고 학문과 문장이 모두 뛰어나서 스스로 터득함이 있었으나 일찍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였다. 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에 그를 인재로 여겼으므로 왕위에 오르자 맨 먼저 불러들였는데 그가 서울에 오자 임금이 승하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귀가하였는데 조정에서 누차 불렀으나 벼슬길에 나오지 않았다.

송천 양응정은 기개가 높기로 당대에 뛰어났는데, 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굴복하여 그의 말을 공손하게 받들면서 감히 한 마디도 못하였다. 공의 앞에서 물러 나와서는 여러 날

을 감탄하면서, “후지(厚之 김인후의 자)는 지금의 안자(顔子:공자의 수제자 안회)이다.”라고 하였다.

하서 김인후의 <칠석부> 일부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가을바람 소슬하게 일어나는 이 저녁
궁궐은 우뚝이 둘러서 있는데
은하수 환한 빛을 바라보니
이 좋은 제절이 이름이 났음을 느끼게 되네.
멋진 낭군과 만나볼 기회임을 생각하고
저무는 해에 만날 날을 약속했다오.

(중략)

바라건대 견우와 직녀는
오랫동안 헤어진다 하여 슬퍼하지 마오.
저 하늘 멀리 바라다보며
이 속세에서도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
같은 아득하고 아득하여 갈 수도 없는데
그 누가 견우 직녀 만남을 엿볼 수 있으랴
괴이하구나, 배타고 하늘로 간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홀로 물결 거슬러 올라가며 이리저리 바라봐도
끝내 망망하여 알 수가 없으니
내 장차 이야기를 참과 거짓 사이에 두리라.

축사

홍경석(洪京錫, 전남향교전교 협의회장)

저는 남평향교 책임자 겸 전남향교전교 협의회장 홍경석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필암서원 산양회원님들, 그리고 고명한 유림지도자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호남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유학의 사표이신 문정공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데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서선생의 학문을 숭모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지만,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문정공 하서 선생의 혁혁한 업적과 학덕은 더욱 크고 새롭게 우리들의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선현께서 호남태생이심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항상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자긍심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옥불탁(玉不琢)이면 불성기(不成器)하고 인불학(人不學)이면 부지도(不知道)라” 예기(禮記)에 있는 말입니다. 옥도 갈아서 광택을 내지 않으면 보석으로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람도 배워서 사물의 도리를 습득하지 않으면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서선생님의 하늘같이 높은 학덕을 배우고 연마코자 하지만 높이에 맞는 사다리가 없어 한스럽기만 합니다. 자연의 봄은 스스로 오는 것이지만 하서선생의 학문을 배우고 실행하기까지는 각별한 노력에 따라 글 춘풍의 보배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뜻 깊은 학술발표회가 우리 사회 만방으로 확산되는데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이정표로 정착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끝으로 학술발표를 해주실 오종일교수님께 경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사를 추진해주신 필암서원 산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

〈2016년 3월 26일 필암서원 춘향제 강론〉

河西선생 〈천명도 제사(天命圖題辭)〉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송하경(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선생 천명도제사(天命圖題辭)란 하서선생께서 천명도를 그리고 간단하게 해설한 글을 말한다. 그러나 그 천명도와 제사는河西全集에 수록되지 아니하고, 1578년(선조6년) 능성(綾城)(오늘의 화순)에서 간행된 정추만(鄭秋巒)(이름은 之雲, 1509-1561)의 저서 〈天命圖와 天命圖解〉 속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정추만의 저서에 의하면, 일찍이 하서선생께서 정추만의 천명도를 보시다가 자득(自得)한 바 있어 따로 일도(一圖)를 그리고 제사(題辭)를 붙였는데 이를 여러 학자들이 편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서에 함께 수록하였다고 한다.

‘天命圖題辭’는 7행에 불과한 매우 간단한 글로, 그 설명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문과 두 분 선생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천명도제사 원문〉

鄭之雲, ‘天命圖解’ 부록 : 維天之命 於穆不

已. 生生之理, 未嘗間斷. 所乘之機 曰陰與陽, 一動一靜, 互爲其根, 萬物竝育, 相爲流通. 但 梏於形氣之私, 不能知之. 惟天下聰明叡智, 至誠無息, 能盡其性者, 乃能有以察其幾焉.

1. 윤사순 교수 번역문; ‘河西 金麟厚의 思想 과 文學 (제1집)’, 하서기념회, 1994.

天의 命이야말로 공경해 마지않아야 하는 것으로서, 生成(生生)하는 理란 일찍이 단절된 적이 없었다. (그 理의) 탐승한 기틀(所乘之機)은 陰과 陽이라는 것인데, (이 陰과 陽의) 한 번 動하고 한 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을 아울러 육성하고 함께 流通한다. 그러나 形氣의 私에 속박되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없다. 오직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聰明과 叡智로 至誠의 태도를 그침 없이 지녀서 그 本性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幾微를 살필 수 있다.“

2. 서경요 교수 번역문: '朝鮮朝 性理哲學의 構造的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天의 命이야말로 공경해 마지않아야 하며, 生生하는 理란 일찍이 간단함이 없다. 그것이 타는 바의 기틀은 음과 양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 動하고 한 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만물을 아울러 육성하고 함께 유통한다. 그러나 形氣의 私에 속박되면 이는 알 수가 없다. 오직 천하에서 총명과 예지로 지성토록 그 침이 없이 그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는 자라야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

3. 송하경 교수 번역문

“(詩經에서) 天(萬物 總和의 世界)의 의지할

동(命)은 深遠하면서도 영원히 쉬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天의 생명 창조 理法 활동이 단절 없이 永遠無窮하다 함이다. 생명 창조의 理法이 발현하는 바로 그 순간에 陰과 陽의 氣가 올라타 끊임없는 陰靜陽動의 활동이 서로 뿌리를 이루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서로 함께 양육하고 서로 더불어 교류-소통한다. 그러나 形氣의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이면 이들 天命活動(만물 창조의 理法활동)을 인식할 수 없다. 오로지 천하에서 (귀와 눈과 마음이) 가장 聰明하고 지혜로우며 한결같은 至誠의 경계에서 능히 그 타고난 本性을 圓滿하게 실현하는 聖者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天命活動의 兆朕을 洞察할 수 있다.”

〈원문번역을 위한 참고문〉

(1) 詩云. 維天之命, 於穆不已, 蓋曰 天之所以爲天也. (中庸 26장)

1 朱子의 注: 詩, 周頌 維天之命篇, 於, 歎辭. 穆, 深遠也.

2 維, 發語辭. 天, 萬物總和之世界. 機, 發動所由. 命, 成而不可易之.

(2) 天命之謂性. (中庸 首章)

1 朱子의 注: 命, 猶令也. 性, 卽理也.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 命令也.

(3)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易 繫辭上)

1 本義: 陰陽迭運者氣也. 其理則所謂道. 道具於陰而行乎陽, 繼言其發也, 善謂化育之功, 陽之事也. 成言其具也. 性謂物之所受, 言物生則有性, 而各具是道也, 陰之事也.

(4) 天地之大德 曰, 生. (易 繫辭下)

1 朱子曰, 天地以生物爲心.

(5) 生生之謂易. (易 繫辭上)

1 本義: 陰生陽, 陽生陰.

(6)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二氣交感, 化生萬物. (周敦頤, 太極圖說)

(7) 唯天下至聖, 爲能聰明叡智, 足以有臨也. (中庸 31장)

(8) 唯天下至聖,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중용 22장)

(9) 至誠無息, 不息則久. (중용 26장)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 연구논문 목록

김재수 편집(필암서원 산양회보 편집주간)

01. 柳正東(성균관대) 河西 김인후의 天命圖에 關하여-秋巒 天命圖와 비교를 중심으로-
02. 柳正東(성균관대) 天命圖說에 관한 연구-陽村, 秋巒, 河西, 退溪의 天命觀 맥락을 중심으로-
03. 尹絲淳(고려대) 河西 金麟厚의 天命思想.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河西紀念會 1994. pp.24~52
04. 李泰鎭(서울대) 河西 金麟厚의 詩 世界에 나타난 小氷期 현상과 天命思想.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二輯 河西紀念會 2000, pp.391~459
05. 金王淵(한남대) 河西 金麟厚의 性理說 研究,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三輯 2005. pp.9~36
06. 柳權鍾(중앙대) 天命圖 비교 연구: 秋巒, 河西, 退溪. 위의 책 pp.159~199
07. 徐垞遙(성균관대)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구조와 성리학 연구. 위의 책 pp.249~282
08. 金文朝(고려대) 河西 金麟厚의 思想體系. 위의 책 pp.283~316
09. 오종일(전주대) 하서 김인후의 학문적 정통성과 중화의 실현.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 상과 현대문명 류승국 외 지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pp.37~59
10. 장민(중국북경대)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에 대하여. 류승국, 위의 책 pp.168~203
11. 장립문(중국 인민대 공자연구원장) 하서 김인후의 성리학적 특색. 류승국, 위의 책 pp.214~260
12. 이동희(계명대)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류승국, 위의 책 pp.262~282
13. 조남남(중국 광주대) 하서 김인후와 조선 중기의 성리학. 류승국, 위의 책 480~523
14. 최일범(성균관대)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에 관한 연구-퇴계, 율곡과 대비하여- 류승국, 위의 책 pp.568~594
15. 김우형(연세대) 하서 성리학의 철학사적 고찰-한국유학사에서 지각론(知覺論)의 태 동

- 과 하서의 역할- 류승국, 위의 책, pp.596~620
16. 金守中(경희대)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河西 天命圖의 의미.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四輯. 河西學術財團, 2010 pp.67~79
 17. 徐垞遙(성균관대) 河西 김인후의 聖學사상 연구-철학적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 위의 책 pp.89~143
 18. 유권종(중앙대) 하서 김인후의 實理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소 12집, 고대 철학연구소, 1988
 19. 오병무 하서 김인후의 성리철학. 동양철학연구 36 동양철학연구회 2004
 20. 서경요(성균관대) 天命圖說의 성리학적 기초, 조선조 성리철학의 구조적 탐구. 성균관대 출판부 2001
 21. 정병련(전남대)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성리학. 유교사상연구 제12집 한국유교학회 1999
 22. 정병련 四七논변의 배경과 전개로 본 조선조 도통
 23. 윤홍식(홍익학당원장)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한 장으로 읽는 中庸(동영상강의)
 24. 오종일(전주대명예교수) 하서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山仰會報 25~26합병호 2015년 12월
 25. 서근식: 하서 김인후의 천명도 구조와 성리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8권 2002년

하서 천명도에는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헌 부족으로 하서에 대한 연구가 지지부진하다가 하서 천명도가 알려짐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25편이 넘는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하서 도학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서학술재단(河西學術財團)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간의 연구를 총 정리하여 〈河西 天命圖 研究〉를 책으로 발간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서 천명도의 바탕이 된 中庸 제1 天命장과 하서 천명도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제1 天命장

천이 명하는 것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가 만약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신하고 들리지

않는 데서 공구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일컫고, 그것이 발현되어 상황의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和라고 일컫는다. 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요, 和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달성해야만 할 達道이다. 中과 和를 지극한 경지에까지 밀고 나가면, 天과 地가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이 잘 자라나게 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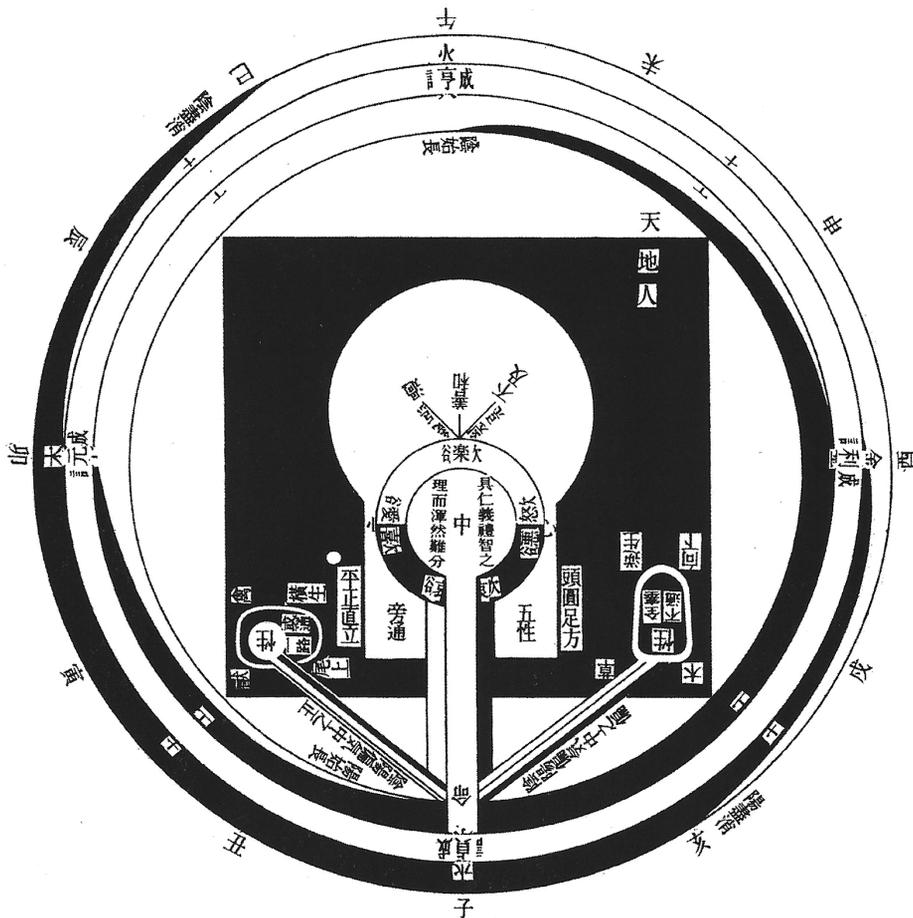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하서 천명도



2016년도 본회 정기 총회 및 학술 강연

오종일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열강

2016년도 제15회 본회 정기 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지난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백록동학규를 낭독한 후 정환담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경석 전남 향교전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유림원로들의 축사가 있었다.

감사 보고에 이어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승인하였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하서 선생 시의 천명(天命) 사상과 그 지향성」이란 연제로 오종일 교수가 열강하였다. 오종일 교수는 “중종조에 기묘사림들이 도학정치를 표방하였는데, 그 도학이란 천명에 근원을 둔 천도(天道)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서 선생은 천명을 소중히 세워서 만물의 도가 약동하는 이상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그와 같은 의지를 밝힌 시 「경자양반송(耕者讓畔頌)」에서 천명의 근원을 밝히고 「일관부(一貫賦)」를 통하여 천도를 인도로서 실현하는 일관의 세계를 이루고자 했으며, 욱기(浴沂)의 시를 썼다. 이와 같은 시를 통하여 참다운 도학정신과 천명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선생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유종 하서 김인후 선생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春享祭)가 2016년 3월 26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환담 필암서원 상암회장, 정운엽 오인균 필암서원 도장의,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형관 광주향교 모성회장, 윤용훈 대전 유림, 유두석 장성군수, 김인수 울산 김씨 문정공 도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춘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奉進禮),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 첫술잔을 바치는 초헌례(初獻禮) 두 번째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례(宗獻禮) 순서로 진행됐다.

초헌관을 맡은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서원내 청절당에서 “하서선생 천명도(天命圖) 제사(題辭)에 대한 재해석”을 주제로 강론했다. 송명예교수는 “하서선생은 성리학의 최대 화두인 이(理)와 기(氣)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태극(太極)에 대한 이론에도 식견이 높아 천명도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하서 선생은 “타고난 본성을 원만하게 실현하려는 성자(聖者)라야 눈에 보이는 만물 창조의 이법인 천명을 통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본회 이사회가 5월 12일에 열렸다.

2016년 상반기 山仰會 이사회가 정환담 이사장을 비롯하여 8명의 이사와 김승규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5월 12일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6년 하계학술강연은 7월 8일(금)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초청강사로는 金忠浩 훈몽재 산장으로 결정했다.

河西 선생의 유적지 답사는 춘추향제를 지낸 후 유적지를 돌아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김세곤 원장이 남도일보에 하서 선생에 대한 글을 5편 신기로 하고 약간의 원고료를 본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山仰會報 제호를 바꾸는 것에 논의하였다.

기타보고 사항으로는 오종일 교수의 〈河西評傳〉 집필목차를 이사님들에게 드리고 후원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선대 이종범 교수가 〈하서 선생 전기〉를 집필하여 출판사에 넘겼다는 소식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정연우서회전” 광주 전시

성리학 대가 하서 詩文 선보여

국제서예가협회장인 학정 이돈홍 선생(72)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체인 “학정체”를 일군 한국 서예계의 거목이다. 학정연우서회는 학정 선생을 모시고 서예를 공부하는 문하생

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한국 서예계를 이끌고 있는 학정연우서회가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5년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학정연우서예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 선생(1510-1560)의 시문이다. 전남 장성출신인 하서는 퇴계와 쌍벽을 이루는 큰선비로 문묘에 배향된 동국18현 가운데 유일한 호남사람이다

회원들은 하서문집에 수록된 시 1600수 가운데 150수를 전서, 예서, 해서, 초서 등 서예 5체와 한글, 문인화 등으로 표현한 작품110점을 선보였다. 회원들은 어려운 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옆에 한글로 주를 달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하서 선생을 모시는 필암서원(사적242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 있다. 호남 유림들이 하서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 때 창건한 사우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도 피해를 보지 않은 유서 깊은 곳이다.

“영·호남, 문화로 화합 이뤄요”

장성 필암서원-영주 소수서원 문화교류협력

1. 추진 배경

- 조선시대 지방 사립학교 격인 전국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동서 지역 서원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봄 조성

- 서원보존의 중요성 및 국민대통합의 재인식의 계기 마련

2. 추진 목적

- 청소년들에게 과거 유산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현대생활에 접목함으로써 문화계승이라는 발전적 측면 부각

_동서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서원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향토 문화 탐방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 공유

3. 사업 개요

<전반기 사업>

일자 : 16. 5. 26(금) - 5. 27(금) (1박 2일)

<교류 기념회>

일자 : 5. 26(목) 17:00

장 소 :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대상학교: 장성황룡중학교 2학년 23명

영주 소수중학교 학생 28명

주요내용: 서원문화체험, 교류기념회, 만찬, 대통합캠페인, 문화체험 등

주최: 국민대통합위원회

시행기관 : 필암 서원

이번 영호남 학생교류행사는 장성 황룡중학교, 영주 소수중학교 학생과 서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유관기관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학교간 자매결연체결 및 소감발표 등이 인상적이며 필암서원 김인수 도유사는 건의사항으로 한광옥 위원장에게 필암서원학술관 건립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

이 있었다.

<하반기 개요>

하반기 문화교류행사는 경북 영주 소수 서원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 경북 영주 소수 서원

(16. 09. 29 - 09. 30 예정)

세부계획 : 추후 확정

수당재단 제25회 수당상 시상식

재단법인 수당재단(이사장 :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은 2016년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5회수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기초과학부문 수상자로 이광자 표지자의 연구 개척자인 조봉래 대전대학 석좌교수, 응용과학부문 수상자로 초분자형광체 및 고성능 유기반도체를 개발한 박수영 서울대학교 교수, 인문사회부문 수상자로 계량경제학 및 수리경제학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정기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되어 각각 1억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수당재단에서는 매년 장성 소재 고등학교 우수 학생 30명과 순창군 소재 고등학교 15명, 45명에게 각각 800,000원 합계 36,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 영재양성에 선구자 역할하고 있다.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

제6회 하서 추모 글짓기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서적242호)은 지난 5월 21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0명이 하서 선생유적지 탐방체험 및 한글 글짓기 대회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학술회(회장 김인수)가 주관하고 장성군청, 장성군 교육지원청, (재)하서 학술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문화 해설사와 학생들이 동행하여 장성군 곳곳의 유적지 뿐 아니라 광주국립박물관과 담양군 소재원까지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삶을 조명해볼 수 있는 탐방체험을 진행했다. 필암서원 관계자는 선비정신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장성 문향인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서 학술재단 본회에 300만원 지원

하서학술재단에서는 본 필암서원 산양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회 활동을 후원하였다.

하서학술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삼양홀딩스에서는 본 산양회에 해마다 200만원을 광고비로 후원하여 산양회보 발간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유지복 교수

〈김인후의 초서와 예술적 성취〉 연구

유지복 경북대 연구교수가 ‘김인후의 초서와 예술적 성취’ 논문을 전남대학교 호남학연

구원에서 2015년 12월 발행한 호남문화연구 제8집에 게재하였다. 이 분야 전문가인 유지복 교수가 하서 글씨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심도있게 하였으므로, 본 산양회에서는 이 논문 500부를 확대복사인쇄하여 필암서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부여 네 향교 유림 현장 탐방 연수

본회 박래호 이사 김인수 도유사 강연

지난 6월 21일 14시 백양사관광호텔에서 충청남도 부여, 임천, 홍산, 석정 4개 향교 유림 80여명이 유림 현장 탐방 연수를 가졌다. 회장 권한대행 전기중, 사무장 류익렬 씨가 인솔하였다.

본회 박래호 이사가 ‘하서 선생과 호남유림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하서학술재단 이사이며 본회 이사인 김인수(金寅洙) 문정공도유사가 ‘하서 김인후에 대한 각개각층의 평가와 필암서원 운영’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김인후 줄기, 호남유림이 보는 하서 평가, 필암서원 건립 및 호남에서의 위치 등 하서 선생의 일생, 사상과 정신에 대해 강연하였다.

장흥향교 흥유회원 필암서원 봉심

지난 4월 27일 장흥향교 문상배(文相培) 흥유(興儒) 회장(현 상군관 부관장)은 회원 32명과 함께 제주와 육포를 갖추어 필암서원 우동사를 봉심하여 뜻 유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2016년 3월 26일(陰曆 2.18)
필암사원 춘향제 헌성금

산양회 회원 동정

- 본회 이충원 총무가 지난 4월 1일 장성향교 제4대 사무국장에 취임하였다.
- 본회 김재수 이사가 지난 3월 28일 봉암서원 춘향제에 종헌관으로 헌작하였다.
- 본회 고문이신 유당 최상옥(崔相玉) 회장 실인 이기순 여사께서 지난 5월 2일 별세 하셔서 본회 박래호, 김재수 이사가 조문 하였다.

금 액	성 명	기 관
5,000,000	김 상 하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500,000	정 환담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500,000	김 인 수	문정공 도유사
300,000	소 쇠 원	제주양씨 소재원 종중
200,000	김 달 수	울산 김씨 대종회장
200,000	김 병 윤	광주 광산구 쌍암동
200,000	김 상 돈	울산김씨문정공맥동파감찰공문중
100,000	김 문 수	엠에스토피아 대표
100,000	김 관 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 상 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 용 대	계파 장산종중
100,000	이 영 만	장성교육지원청장
100,000	김 재 승	전 전대교수
100,000	김 재 수	산양회 부회장
100,000	김 용 숙	광주종친회장
100,000	정 환 담	산양회 이사장
100,000	김 양 수	전 장성군수
100,000	김 동 식	울산김씨 서수헌공파
100,000	문 경 규	전 담양군수
100,000	김 상 덕	광주 밀등회장
100,000	박 영 수	필암정미소
100,000	영귀서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50,000	공 병 주	제관 (북이면 수성)
50,000	양 태 호	담양 남면 연천리
50,000	김 성 수	장성군 장성을 수산리
50,000	변 원	봉암서원
50,000	김 진 산	문정공 별유사
50,000	유 관 종	손계서원
50,000	정 종 연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회장
50,000	김 영 우	황룡면 맥호리
50,000	공 영 갑	장성 문화원장
50,000	고 광 춘	청년유도회장
50,000	양 중 호	담양군 수북
50,000	차 장 곤	장성축협조합장
50,000		소재원종손
50,000	김 영 길	서울 종친
50,000	허 만 수	축관(진주봉림서당)
30,000	김 용 규	은하수 관광



2016년 추모화환

울산김씨 대종회 회장	김달수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인수
광주 향교 전교	강대욱
울산김씨 밀등회회장	김상덕
광주향교 모성회 회장	김형관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최흥렬
성군관 유도회 광주본부 회장	김남전
그레이스 회원 원장	김동원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흥군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주제아래 안푸흠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0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주제 아래 趙鍾業총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2월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주제 아래 金基鉉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년 3월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 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년 8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년 9월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년 12월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년 3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燮圭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년 5월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푸흠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년 6월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년 7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년 9월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년 12월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년 12월 17일 산양회정기총회, 안푸흠회장과 金長洙총무가사임하고새회장에게 朴鍾達, 새총무에게 孔鍊雄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교수가 강연함.
- 2004년 3월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박병호 교수가 河西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년 9월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년 12월 10일 산양회정기총회및학술강연. “河西의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4호 1500부 발행.
- 2005년 3월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유림이나아가야할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전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전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년 12월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년 3월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년 7월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년 10월 1일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년 12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준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월 3일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목 차 -

하서 시(河西 詩) 감상 하서 김인후	01
늘 하서(河西)공의 칠석부를 외우더니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	03
축사 홍경석(전남향교전교 협의회장)	05
河西선생 천명도 제사(天命圖題辭)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송하경(성균관대 명예교수)	06
하서 김인후의 <天命圖> 연구논문 목록 김재수 편집(필암서원 산양회보 편집주간)	08
필암서원 · 산양회보 소식	11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 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7년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추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교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 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